

'평화의 노래' 100회...유라시아 횡단으로 영근다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20일,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김원중의 달거리' 100회를 맞은 가수 김원중씨는 꽤 뜸터였다. 다달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무료 공연을 100번 여는 것은 지역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출발한 '김원중의 달거리'가 오는 27일 공연으로 100회를 채운다.

김원중씨와 공연을 함께해 온 지역 문화 예술인들은 이번 100회 공연을 계기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18t급 트럭을 타고 휴전선을 넘어 시베리아, 러시아 모스크바, 독일 베를린까지의 횡단길에 공연을 열겠다는 것이다. '코리아-유라시아 로드런' (이하 코리아) 공연은 이번 달거리 공연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달거리 공연이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 '코리아' 공연은 달거리가 잉태해 세상에 선보여진다고 보면 된다. 이들 공연은 하나로 묶여져 이날 오후 7시30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코리아 로드런'은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 50개 도시를 돌며 시베리아를 횡단하기 위한 계획을 한다. 100회를 맞은 달거리는 그동안 750명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평화통일을 위해 마련한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가 오는 27일 100회를 맞는다. 출연진의 합동 공연 모습.

'김원중의 달거리' 100회 기념 공연... 27일 5·18민주광장 출연자만 750명·1억1700만원 모금...북 어린이에 빵 지원 내년 전국 50개 도시서 '코리아 로드런' 프로젝트 예열

넘는 출연진과 200여 명의 운영진 등 1000여 명이 함께 꾸려왔다. 선두에는 1985년 '바위섬'으로 데뷔한 가수 김원중씨가 있었다. 김씨는 음악 인생 30년 넘게 민중과 통일을 노래해왔다.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는 지역민들이 직접 평화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다. 행사 후원금이 '북녘어린이영양양공정사업본부'의 영양 빵 공장으로 보내지기에 말 그대로 '빵 만드는 공연'이라 부른다. 매회 평균 200~300명의 관객이 그동안 자발적으로 낸 1억1700만여 원으로 만들어진 빵은 북녘 어린이들의 허기를 달래고 있다. 100회 공연에는 그동안 달거리를 빛낸

문화예술인들이 총출동한다. 지난 6월 출범한 비영리법인 '코리아 로드런' 고문을 맡은 김용택 시인과 주홍 샌드메이션 작가, 소프라노 유형민, 사진작가 리일천 등이 함께 한다. 프롤로그인밴드, 바락 프로젝트, 우물안개구리가 무대에 서고 올해 '오월장작가요제'에서 주제를 펼친 광주청년예술인 14명이 합동 광주의 오월을 노래한다. 1999년부터 매해 5·18 전야제에 참가한 일본의 합창단 '우타고에 일어서라! 합창단'도 100회 공연을 축하하러 광주를 찾는다. 이날 공연에는 '코리아 로드런' 주제 가인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이



김용택 시인

다'를 지역 음악인들과 부른다. 이 노래는 김원중씨가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평화통일을 향한 지역 예술인의 염원을 담아 만들었다. '코리아 로드런'에는 그동안 달거리로 참가한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인이 고정 출연진으로 함께 한다. '경계를 넘어 베를린까지 땅으로 가자. 싸움싸움!'이라는 주제에 맞게 육로로 횡단할 수단이 관건이었다. 무대와 음향, 조명 설비가 갖춰진 차량은 아시아문화원으로부터 빌리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길이 12.5m에 달하는 대형 차량은 앞으로 내년 상반기 25일, 하반기 25일 동안 매일 팔도를 돌며 게릴라식 즉석 공연을 여는

무대가 된다. 공연이 치러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무대를 꾸민다. '이들이 과연 휴전선을 넘어 평양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세간의 물음에 김원중씨를 비롯한 기획단은 "문화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 못할 곳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동차, 기차를 통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은 섬처럼 살아와 항상 안타까웠다"며 "시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신적·물리적 지평을 넓혀 문화의 이름으로 평화의 길을 내고자 한다"며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김원중의 달거리에 참여한 출연자, 운영진, 후원내역 등을 담은 백서가 올해 안에 발간될 예정이다. 휴식기를 제외한 11년의 여정이 오롯이 실렸기에 분량만 230쪽을 넘는다. 공연 및 후원 문의 010-3670-580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법강 '북한 미술' 강연 광주비엔날레, 내일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Imagined Borders)' 7개의 주제전 중 한 섹션인 '북한미술: 사회주의의 패러독스' (North Korean Art: Paradoxical Realism)를 기획한 문법강(사진) 큐레이터 강연이 마련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2일 오후 7시 제문헌 1층 로비에서 문법강 큐레이터의 GB토크를 개최한다.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문법강 큐레이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 평양을 방문해 북한미술을 연구해 온 북한미술 권위자로 이번 강연에서는 '북한미술: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 기자 mekim@

예술의 거리에 융·복합 레지던시 스튜디오 '뉴폼스'

내일 오픈 행사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융·복합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뉴폼스' (NEW FORMS)가 문을 열었다.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설립한 '시온미디어'가 개관한 '뉴폼스'는 미디어 아트 분야의 창작자와 제작자를 육성하고, 융·복합 예술창작 특화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오픈 스튜디오다.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인 광주의 의미 있는 공간이다. 시온미디어는 '빛'을 주제로 '뉴폼', '패스', '조월' 등 융·복합 공연 작품을 꾸준히 제작·발표하고 있는 예술가 그룹으로 이강민은 진시영 작가의 아이디어와 대담아트센터 정준희 대표의 지원으로 문을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2일 오후 6시 열리는 오픈 행사에서는 작품 연구·개발 및 제작 때 사용되는 스튜디오 작업실과 프로젝트 맵핑 시연 공간, 움직임 퍼포먼스 창작 공간 등을 소개하며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뉴폼스'는 앞으로 뉴미디어 기반의 창작자 3명과 단기 작가 1명을 모집하고, 이들 작가들의 공동 프로젝트 융·복합 콘텐츠 제작, 창작, 교류, 교육을 지원한다. 또 시민체험 프로그램으로 22일까지 오픈 캠퍼스 무료 체험자도 모집한다. '뉴폼스, 융·복합 작가와 함께하는 예술체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는 27일부터 10월26일까지 진행되며 음악적 스토리 구성,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의 062-223-065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윤세영·이정기...中 팽신현 작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 24~25일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오는 광주 지역 작가의 해외진출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중외공원에 터를 잡은 스튜디오에서는 지역청년작가 입주 및 해외파견, 해외작가 초청, 오픈스튜디오 및 발표전 개최, 크리틱 미술현장탐방 등 다양한 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가 오는 24~25일 오후 3시~8시까지 열린다. 이번 오픈스튜디오 참여작가는 광주의 윤세영·이정기 작가와 중국작가 팽신현이다. 광주작가는 1년간, 해외작가는 2~3개

월 단위로 입주해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세영 작가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무한한 시간의 의미를 LED 조명을 이용해 뒤편에 비추어 형상화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이정기 작가는 현재 작업 중인 '유물' 시리즈 중 '희귀한 유물, 시대의 초상'을 보여준다. 또 판화작가 팽신현은 삶의 변화를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들을 기록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이들은 전시작품 뿐만 아니라 작품제작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24일 오후 5시에는 대만 관두미술관 기획자로 레지던스에 머문 차이밍준의 '광주리포트'가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하는 윤세영·이정기·팽신현 작가(왼쪽부터). 열리며 최근 대만 타이난 사울롱 아티스트 빌리지에 교류작가로 다녀온 이세현 작가와 2개월간 타이페이 국립대학 관두미술관 기획자 교류를 마친 김민지 기획자의 '해외 파견리포트'가 진행된다. 또 25일 10시에는 장민한(조선대 미술대학) 교수와 권은영(ACC 아시아문화원) 큐레이터가 참여하는 입주작가 크리틱 프로그램이 열린다. 062-613-715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